

# 1) 달라진 재택치료! 확진자·동거가족 생활수칙은?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2.02.11. 15:52

수정일 2022.02.13. 18:29

조회 101,462

좋아요 86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톡](#)
- [카카오프스토리](#)
- [페이지 UIRI 복사](#)
- [인쇄하기 새창열림](#)
- [글자 크기 크게 변경하기](#)
- [글자 크기 작게 변경하기](#)



코로나 19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기준이 변경됐다. 오미크론 대응 확진자 관리 체계가 변경되면서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코로나 19 확진자·동거인을 위한 안내문을 배포했다. 안내문에는 확진자·동거인이 자택 격리 중 지켜야 할 수칙, 주의사항, 필수 정보가 담겨 있다. 확진자는 60 세 이상, 50 대 이상 기저질환자 등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나뉘어 관리된다.

**[확진자] 접촉력과 관계없이 7일 격리**



## 코로나19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기준 변경

(9일 0시부터 적용)

확진자	
격리기간	접종력과 관계없이 7일
격리기간 기산일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b>검체채취일로부터</b>

접촉자	
격리대상	<b>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b> 감염취약시설 내 밀접접촉자
격리기간	접종완료자 <b>격리면제</b> (7일 수동감시) 미완료자 <b>7일 격리</b>
동거인 중 추가 확진자 발생 시	추가확진자는 검체채취일로부터 <b>7일 격리</b> 추가확진자 외 공동격리자는 최초 확진자 격리해제시 동시 해제

자료 : 질병관리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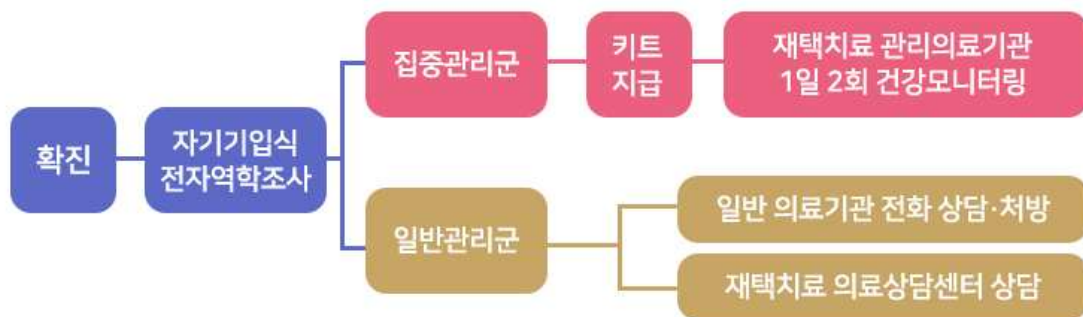
확진자는 확진 후 **검체채취일로부터 7 일**까지는 타인에게 전염시킬 위험이 있어 집(생활치료센터, 전담병원)에서 격리하게 된다.

격리는 **검체채취일로부터 7 일 차 자정(24:00)에 격리가 해제**되며, 해제 전 검사는 하지 않는다. **격리해제 후 출근·등교 등의 외출은 가능**하나, KF94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감염위험도가 높은 시설의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

### 재택치료 개요

#### -재택치료(집중관리군)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으로부터 **1 일 2 회 건강 모니터링**을 받게 된다. 재택치료자는 진료지원 앱을 설치하고, 제공되는 재택치료키트를 활용



하여 매일 체온, 혈압, 맥박, 산소포화도, 혈당 등을 입력해야 한다. 소아용 재택치료키트는 요청 시 지자체에서 지급된다.

증상 발생 시에는 재택치료 키트 내 약물을 복용하고, 필요 시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의 전화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다. **대면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면외래진료센터**를 방문한다. 사전예약 후, 도보, 개인차량, 방역택시 등을 활용한다. [☞대면외래진료센터](#)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는 의사의 판단하에 처방**이 가능하다. 투약대상은 60 세 이상, 50 대 고위험·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등이다.

계속 가슴이 아프거나, 손톱이나 입술이 창백하거나 푸르게 변하는 등의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진료지원앱 응급전화 또는 재택치료추진단으로 연락한다.

## - 재택치료(일반관리군)

2 월 10 일부터 일반관리군 환자는 정기적 모니터링 없이 필요 시 동네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전화 처방·상담을 받을 수 있고, 24 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에서도 의료상담을 받을 수 있다. [☞동네 병·의원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안내 페이지](#)

1 일 1 회 전화상담 및 처방이 가능하며 만 11 세 이하 소아확진자(예방접종 미대상군)는 1 일 2 회 가능하다. 추가 본인 부담은 없다.

대면 진료가 필요하면, **사전예약**을 하고 **대면외래진료센터**를 방문할 수 있다. 도보나 개인차량, 방역택시를 활용하여 이동 가능하며, 반드시 KF94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대면외래진료센터](#)

약 처방이 필요하면 전화 상담·처방 후 조제된 약을 배송 받거나 또는 가족 중 공동격리자가 약 수령을 위한 외출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코로나 19 지정약국 안내 페이지](#)

## **[동거인] 접종완료자는 격리면제...추가 확진자는 새롭게 7일 격리**

동거인은 확진자와 철저히 공간을 분리하여 생활해야 한다. **확진자와 마주칠 경우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확진자와 같은 공간에서 식사 및 활동을 하지 않는다. 하루 3 회 이상, 10 분 이상 환기하고, 소독티슈 등을 이용해 표면소독을 자주 실시하는 것이 좋다.

확진자와 공동생활한 만큼, 매일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발열·기침 등의 증상이 관찰되면 자가검사키트로 우선 검사**하고, 코로나 19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PCR 검사를 받는다.

외출시에는 KF94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도보, 개인차량이나 방역택시로 이동한다. 발열 등 증상으로 **진료 및 처방**이 필요한 경우, 호흡기전담클리닉, 동네 병·의원 등을 통해 의료진에게 전화 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다.

격리기간은 최초 확진자와 동일하나, 동거인 중 접종완료자는 격리면제로 외출이 허용된다. 동거인 중 추가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추가확진자는 새롭게 7일 격리하며, 그 외 동거인의 추가격리는 없다.

격리기간 중 병·의원 대면진료, 의약품 구매·수령, 식료품 구매 등 필수적 목적의 외출만 1일 2시간 이내에 한하여 허용된다. 자가검사키트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음성 결과를 확인하고 외출하는 것을 권고한다.

**격리 해제가 되려면 해제 전 PCR 검사 결과 후 음성 확인을** 받아야한다. 격리해제 됐다고 하더라도,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를 착용하고,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은 피하는 것이 좋다.

-----  
코로나 확진자 동거인, 격리방법은?  
신은진 헬스조선 기자

가 -  
가 +  
2022/02/24 21:00

▲ 코로나19 확진자 동거인도 7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게티이미지뱅크

24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7만명을 돌파했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격리와 관찰이 필요한 가족 등 동거인도 늘었다. 확진자 동거인의 자가격리는 어떻게 격리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PCR 검사받고 7일간 격리해야

확진자의 동거인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력이 높은 시기에 같은 공간을 사용했기에 감염 가능성이 높다. 그 때문에 확진자의 동거인은 즉시 PCR 검사를 받아야 하고, 미 접종 동거인의 경우 반드시 격리를 해야한다. 백신접종 완료자인 동거인은 격리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이 때 백신접종 완료자란 3차 접종완료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 이상 90일 이내, 최근 90일 이내에 확진되었던 자를 의미한다.

백신 미 접종 동거인의 격리기간은 최초 확진자와 같아, 확진자의 검체채취일부터 7일 차 자정(24:00)까지이다. 동거인 중 추가확진자가 발생하면, 추가 확진자는 새롭게 7일간 격리를 해야한다. 그 외 확진되지 않은 동거인의 경우, 추가격리는 하지 않아도 된다.

동거인은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 없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건강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37.5

도 이상의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후각 또는 미각 상실 등 코로나 의심 증상이 나타나진 않는 지 점검하고, 증상이 있으면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때 검사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으면 된다.

코로나 의심 증상이 없고, PCR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은 동거인은 격리기간 중이라도 병·의원 대면진료, 의약품 구매·수령 등 필수적 목적 외출이 가능하다. 단, 외출은 1일 2시간 이내만 허용된다. 자가검사키트 사용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외출 전 음성 결과를 확인한 후 외출하는 게 좋다.

동거인의 격리해제는 해제 전 PCR 검사 결과에서 음성이 확인되어야 가능하다. 확진자는 격리 기간 해지 전 검사를 하지 않지만, 동거인은 확진자 격리 해제 하루 전에 1회 PCR검사를 받아야 한다. 음성판정을 받아 격리해제를 받더라도 3일간은 KF94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고, 감염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의 이용과 사적모임은 자제해야 한다.

-----